

주련(柱聯)을 통해 본 창덕궁 옥류천 일원의 경관 해석

장 림* · 소현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과 ·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nterpretation of Landscape Based on the Pavilions' Hanging Couplets of the Ongnyucheon Region in the Changdeokgung Palace's Rear Garden

Zhang Lin* · So, Hyun-Su***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landscape of Soyojeong, Taegeojeong, Chunguijeong and Chwihanjeong in the Ongnyucheon region of the Changdeokgung Palace by analyzing the landscape elements using the pavilion's hanging couplets. Next, the landscape elements would be classified and interpreted by the Tang dynasty poet named Wang Changnyeong(王昌齡, 698-757) who put forward the range of aesthetics. According to the three kinds of classified boundar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Wujing*(物境)' described at spring dawn or in the moonlit night when the rain stopped, dew condensed, blooming flowers were in the quiet garden, fishes were drawn from the pond, and golden ogres sung in a dense pine forest.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Qingjing*(情境)' described the emperor who held a grand ceremony: he sat in the jade throne, red curtains and gorgeous fans are propped up etc. All of these were used to praise the reign of a stable and peaceful nation.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Yijing*(意境)' mainly described the Ongnyucheon region's scenery as an immortal world where people can experience and reach a high spiritual realm such as the 'integrated as one(物我一體)'.

Key words: Landscape Elements, Wujing, Qingjing, Yijing

국문초록

본 연구는 창덕궁 옥류천 일원에 소재한 소요정(逍遙亭), 태극정(太極亭), 청의정(淸漪亭), 취한정(翠寒亭)에 걸린 주련시(柱聯詩)에 표현된 경관요소들을 중국 당대(唐代) 의경 이론을 정리한 왕창령(王昌齡, 698-757)의 세 가지 경계로 구분하여 경관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경(物境)과 관련하여 봄날 새벽녘이나 달밤, 비가 개이고 이슬이 내려앉은 고즈넉한 정원에는 꽃이 피고, 연못에서 물고기가 노닐고,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피꼬리가 우는 경관이 그려졌다. 둘째, 정경(情境)과 관련하여 임금이 화려한 부채 아래로 붉은 장막을 친 수레에 앉아 옥류천 일원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그려서 태평한 시절에 대한 감정이 표현되었다. 셋째, 의경(意境)과 관련하여 옥류천 일원의 승경이 자연과 물아일체를 경험하는 청정한 경지를 제공함으로써 신선세계로 묘사되었다.

주제어: 경관요소, 물경(物境), 정경(情境), 의경(意境)

†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hssu@uos.ac.kr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련(柱聯)은 한시(漢詩)의 좋은 구절이나 자랑할 만한 문장을 종이나 판자에 쓰거나 새겨서 기둥에 걸어 놓은 장식물이다. 기둥마다 시구를 연하여 걸었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기둥 ‘영(楹)’을 써서 ‘영련(楹聯)’이라고도 하고 ‘대련(對聯)’¹⁾이라는 명칭도 사용된다. 주련은 궁궐을 비롯하여 서원, 사찰, 누정(樓亭), 사대부가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한문학, 서예, 전각(篆刻) 예술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전통원림 측면에서도 심미적,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창덕궁은 1610년부터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주요 전각들이 재건되었고, 후원의 경우 인조(仁祖, 1623-1649 재위) 때 옥류천(玉流川)을 포함하는 주요 부분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창덕궁 후원의 정자에 부착된 주련은 350년 이상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당시의 경관은 바뀌었지만, 주련은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즐겼던 창덕궁 후원의 경관에 다가설 수 있는 유용한 현장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관 텍스트로서 주련에 착안하여 창덕궁 후원 옥류천 일원의 과거 경관을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창덕궁 후원의 원형경관과 경관 체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시로 된 주련의 정보를 설명력 있게 전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의 대상

1) 옥류천 일원의 경관적 가치

창덕궁을 소개하는 브로슈어에서 부용지와 주합루, 애련지와 의두함, 연경당, 존덕정 일원, 옥류천 일원으로 후원을 구분하고 있다. 옥류천 일원은 정조가 ‘상원(上苑)’이라고 기록하기도 했는데, 취규정(聚奎亭)을 지나서 깊숙한 골짜기 계곡을 따라 취한정(翠寒亭), 소요정(逍遙亭), 농산정(籠山亭), 태극정(太極亭), 청의정(淸漪亭)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정자의 배치는 『동궐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ure 1). 이 중에서 인조 14년(1636)에 탄서정[歎逝亭; 소요정], 운영정[雲影亭; 태극정], 청의정이 조영되었으며, ‘상림삼정(上林三亭)’이라고 불렸다.

옥류천의 핵심이 되는 소요암(逍遙巖)²⁾에는 인조의 친필로 알려진 ‘玉流川’이 새겨져 있다. 『동궐도』에는 소요암 뒤에 지당이 있고, 태극정 옆에 방지가 배치되었으며, 농산정 앞에는 아치형 문이 달린 취병(翠屏)이 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이곳은 계곡의 경관을 활용함으로써 자연 순응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정원을 대표한다. 또한 연꽃을 중심으로 한 경관이

우세한 부용지와 애련지 일원에 비하여 옥류천 일원에는 경관 요소가 다양하고, 고종 대에 경관이 변형된 존덕정 일원과 달리 비교적 옛 경관이 잘 보존되었다는 특성을 가진다.



Figure 1. Seven pavilions near Ongnyucheon region in 「Donggwoldo(1828)」

Source: Collected at Korea University Museum

2) 주련이 있는 옥류천 일원의 정자들

창덕궁 후원에서 11개의 정자에 주련이 부착되어있는데, 5언의 한시로 작성된 애련정을 제외하면 모두 7언의 한시가 적혀진 4~12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부용정과 애련정의 주련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서체(草書體)로 쓰여 있다. 창덕궁 후원 주련의 필적(筆跡)은 어느 시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으

Table 1. Brief pavilion's hanging couplets of Changdeokgung palace's rear garden

Classification	Pavilion name	Pavilion building period	Number of couplets
Buyongji region	Buyongjeong	1793	10
Aeryeonji region	Aeryeonjeong	1692	8
John Deokjeong region	John Deokjeong	1644	6
	Pyeomusa	Before Jeongjo	8
	Gwanamjeong	1907	6
	Seung jaejeong	1907	4
Cheongsimjeong region	Cheongsimjeong	1688	4
Ongnyucheon region	Soyojeong	1636	4
	Taegeojeong	1636	4
	Chungjeuijeong	1636	4
	Chwihanjeong	Injo-Sukjeong period	12

나 출입이 제한된 금궁(禁宮)의 주련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금이나 각관(各官)의 필적이라고 추측된다(Lee, 1984)[3]. 청의정의 경우, 김가진(金嘉鎭, 1846-1922)이 썼다는 기록이 있다[4].

본 연구는 옥류천 일원에 소재한 소요정, 태극정, 청의정, 취한정에 걸려있는 24개의 주련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소요정, 태극정, 청의정에는 주련이 4개씩 걸려 있으며, 취한정에는 하나를 소실하여 11개의 주련이 있다(Table 1).

3. 연구사

옥류천 일원과 관련하여 공간의 변천 과정, 각 건축물과 관련된 이용행태, 외부공간의 식재 및 수 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 연구로서 Jung(2015)[7]은 「동궐도」와 「동궐도형」을 통해서 창덕궁 후원에 소재한 정자들의 건립 시기와 경관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Hong(2015)[8]은 『홍재전서(弘齋全書)』, 『정조실록』을 통해서 정조가 옥류천의 폭포 구경을 즐겼다는 행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조가 읊은 「상림십경(上林十景)」을 고찰한 연구로서 Yi(2000)[5]은 「곡수유상(曲水流觴)」을 토대로 하여 옥류천 주변 정자의 물리적 공간 배치를 해석하였으며, Kang(2006)[6]은 창덕궁의 경관 해설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Son and Ham(2011)[9]은 본 연구에서 분석 도구로 설정한 중국 의경 이론을 소개하고 창덕궁 후원과 관련된 숙종과 정조의 시문을 대상으로 경관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기본 맥락은 동일하지만, 주련을 대상으로 하고 의경 이론의 적용 방법을 달리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지닌다.

창덕궁 후원의 주련에 대한 최초의 정보로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서 조사한 『각궁주련조서(各宮柱聯調書, 1957)』[4]가 있으며, 이후 『창덕궁 내 정(亭)·사(榭)·당(堂)·재(齋)의 주련조사현황, 1984)』[3]이 있고, 문화재청에서 『궁궐 주련의 이해, 2006』[10]와 『궁궐의 현판과 주련2, 2007』[11]을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 성과로서 Kwon(2007)[12]은 조선시대 궁궐, 사찰, 서원에 걸린 현판과 주련의 예술적 표현에 관심을 가졌으며, Liu(2014)[13]는 경복궁, 창덕궁과 자금성의 주련에 쓰인 시의 형식적 측면을 고찰하였고, Lee(2011)[14]은 창덕궁의 주련 중에서 배치가 잘못된 현황을 짚어주었다.

조경학 분야에서 Heo(2011)[15]은 저서에서 주련을 ‘시로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하고 창덕궁 후원의 주련을 ‘도교적 이상세계를 꿈꾸다’라는 소재목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밖에 창덕궁 후원에 있는 정자 중 일부에 한정하여 주련 시를 소개한 경우가 있었으나 주련을 경관 텍스트로 삼아서 창덕궁 후원의 경관을 해석한 연구는 없었다.

II. 이론적 고찰

1. 주련의 유래와 내용

1) 주련의 풍습과 전래

주련을 만드는 풍습은 중국 오대(五代)에 ‘도부(桃符)’³⁾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민간에서 정월에 복숭아나무 판자에 전설 속 귀신 형상을 그려서 문의 좌우에 걸어 놓으면 잡귀를 쫓아낸다고 믿었던 것인데, 그림 대신 이름을 써서 붙이다가 이후 시문을 나무판에 새겨서 걸어 놓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것은 송대(宋代)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였으며,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 때 도부 대신 종이에 글을 써 붙이는 ‘춘련(春聯)’⁴⁾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명되고 보편화되었다. 이와 같은 문화는 청대(清代)에 성행하였으며, 주변 한자 문화권에서 널리 전파되었다.

한국에서 주련은 고려시대 춘첩자(春帖子)⁵⁾에서 시작했다고 전해진다[17]. 1123년 서궁(徐兢, 1091-1153)이 고려를 방문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서 송 휘종(徽宗)에게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바쳤는데, 여기에 개경 광화문(廣化門)에 붙인 춘첩자를 소개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궁궐 주련에 대한 최초 기록으로 보인다. 이후 『동문선(東文選, 1478)』에 김부식(金富弼, 1075-1151)이 쓴 「내전춘첩자(內殿春帖子)」가 기록되었으며,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어진춘첩자(御殿春帖子)」와 「태후전춘첩자(太后殿春帖子)」가 있는데, 대체로 장수를 기원하는 5언 또는 7언 시의 형태이다[16].

조선시대까지 주련의 풍습이 성행함으로써 문신들이 창작한 춘첩자가 많은 사서(史書)와 시문선집(詩文選集)에 수록되었는데, 규장각에서 정조부터 순조 시기까지 창작된 춘첩자를 편집한 「춘첩자」 3권이 대표적이다[17].

2) 주련의 내용과 구성

우리나라 궁궐에 부착된 주련은 아름다운 강산에 대한 묘사, 국가의 태평성세(太平盛世)와 만사대길(萬事大吉),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중국 한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러한 뜻을 표현하기도 하고, 형식에 맞추어 한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주련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고 대체로 짝을 이룬다. 주련의 배열 원칙은 짝이 되는 두 구절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從右到左], 시계 방향으로 배치하였다.

2. 한시의 경(境)으로서 물경, 정경, 의경

1) 경관 해석을 위한 의경의 의미

주련은 한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주련 해석을 위해서 중국 시론(詩論)의 미학적 범주를 대표하는 의경(意境)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시를 구성하는 한자를 번역하지만 시의 원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내재적 의미에 대한 풀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시에 함축된 의경은 창작 주체의 감정이나 사상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사고 방법을 제시한다.

중국에서 의경의 개념과 이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었으나⁶⁾ 중국의 시 문화가 번성하고 전 시대보다 엄격한 시의 형식이 구성되었던 당대(唐代)에 ‘경(境)’이라는 새로운 심미 범주가 등장함으로써 의경 이론이 탄생되었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창덕궁 후원의 정자에 설치된 다수의 주련시가 당대부터 청대 시인들의 시구를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경관 해석 방법론으로서 당대의 의경 이론을 고찰하였다.

2) 경관 해석 방법론으로서 왕창령의 삼경(三境)

의경의 사상적 근원은 노자와 장자의 미학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유협(劉勰, 465-532)이 『문심조룡(文心雕龍)』 ‘신사편(神思篇)’에서 ‘의(意)’와 ‘상(象)’을 결합한 ‘의상(意象)’을 문학 창작에 처음 운용함으로써 당대 의경 형성에 바탕을 제공하였다. 이후 당대 시인이자 이론가인 왕창령(王昌齡, 698-757)은 『시격(詩格)』[18]에서 ‘상’을 ‘경(境)’으로 발전시켰다. 『시격』에 소개한 시의 세 가지 경계(境界)로서 ‘물경(物境)’, ‘정경(情境)’, ‘의경(意境)’은 후대 중국시의 미학 원리를 제공하는 의경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첫째는 물리적 사실에 해당하는 물경이다. 물경은 산수시를 지으려고 하면 샘과 비위가 있고 구름이 피어나는 봉우리와 같은 경(境)이 있으니, 극히 아름답고 극히 빼어난 신이 마음에 깃들고 몸소 그 경(境)에 처하여 마음에서 그 경을 보고 마치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사물이 밝아지고 난 후 상상을 이용하여야 그 경상(境象)이 요연하여질 것이며 따라서 형사(形似)를 얻을 수 있다. 둘째는 의미와 정서에 해당하는 정경이다. 정경은 즐거움과 근심은 모두 뜻에서 배풀어지고 몸소 처하는 것이니, 그런 후 상상하면 그 정은 깊어진다. 셋째는 이상적인 세계에 해당하는 의경이다. 의경은 이 역시 뜻에서 배풀어지고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그 진정함(眞)을 얻을 수 있다.⁷⁾

물경은 구체적인 외부 경물(景物)을 선택해 그 경물에 마음과 정신을 투영하여 그 경물과 하나가 되는 경계를 가리킨다. 정경은 작자의 몸과 마음이 어떤 구체적 감정에 몰입한 상태에서 그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풀어내는 경계를 말한다. 의경은 참(眞)이라는 내면의 의식을 가리키는 경계이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논하는 의경론은 왕창령이 세 가지 ‘경’ 중에서 하나로 제시한 의경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중국 미학 이론의 평론가 엽랑(葉郎, 1938~)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세 종류의 경계 중 물경은 자연산수의 경계를 가리키고, 정경은 인생 경험의 경계를 가리키며, 의경은 내면의식의 경계를 가리킨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의경과 우리들이 현재의 경론이라고 할 때의 의경은 결코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왕창령이 말하는 의경은 ‘경’의 한 종류이고, 예술창조의 주체에 대한 말하자면 그것은 기타 두 종류‘경’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하지만 의경론의 의경은 일종의 특정한 심미의상이고 ‘의’와 ‘경’의 결합이다.⁹⁾

왕창령이 언급한 의경은 의경론 중 일부에 속하는 개념이다. 자연미를 객관적으로 묘사한 산수시(山水詩)가 『시격』에서 말하는 ‘물경’이며, 희노애락(喜怒哀樂)인 인생 경험의 경계로 표현된 서정시(抒情詩)는 ‘정경’이다. 또한 철리시(哲理詩)는 ‘의경’에 해당한다. 즉, 왕창령은 물경, 정경, 의경을 한 자리에 나열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다룸으로써 산수시, 서정시, 철리시의 창작 경험을 총괄하여 말한 것이다.¹⁰⁾ 창덕궁 후원 정자의 주련시에서 이들 세 가지의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해를 통해서 ‘삼경’을 경관 해석을 위한 분석의 도구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옥류천 일원의 경관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과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동궐도』와 『수치지도(2010)』를 통한 도상 분석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옥류천 일원의 공간 구성과 경관 변화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대표 승경시를 토대로 정자별 경관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궁궐의 현판과 주련2(2007)』[11]에서 연구 대상인 정자별 주련의 배치와 이미지 정보를 추출하여 정리하였고(Figure 2), 주련시 해석 내용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과정으로서 주련시를 구성하는 시어들을 경관요소로 추출한 후, 이들이 담고 있는 내용과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태’, ‘의미’, ‘풍토’ 항목으로 분류하였다.¹¹⁾ 이때, ‘형태’는 지형, 동물, 식물, 인간 등 자연요소와 정원, 구조물, 시설물 등 인공요소로 나누고, ‘의미’는 종교와 문화로, ‘풍토’는 기후, 계절, 시간으로 세분화하였다.

연구의 핵심 과정으로서 앞서 분류한 경관요소들을 왕창령이 제시한 세 가지 경계인 ‘삼경’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자별 주련시를 구성하는 각 연마다 담고 있는 시의 내용을 물리적 사실에 해당하는 물경, 의미와 정서에 해당하는 정경, 이상적 세계를 설명하는 의경으로 구분하여 파악

Classification	Soyojeong	Taegeukjeong	Cheongeuijeong	Chwihanjeong
The order of couplets				
The image of couplets				

Figure 2. The order and image of couplets

하였다. 각련에서 추출한 경관요소들을 해당되는 세 가지 계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련사에서 읊은 네 개의 정자별 경관을 도출하여 옥류천 일원 주련의 경관 특성을 정리하고,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물경, 정경, 의경 측면으로 본 창덕궁 후원 옥류천 일원의 경관을 해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정자별 주련 해석

1) 소요정(逍遙亭)

(1) 경관 고찰

1636년 탄서정으로 건립되었던 소요정은 숙종 때 개칭되었다. 옥류천의 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소요암 가까이에 소요정을 조성하였다. 『동궐도』에는 소요정 앞 물길에 합수되는 지점에 석판교가 놓여 있고, 소요정 남쪽에 7자로 꺾인 담장이 있으며, 담장 서편에는 옥류천 남쪽과 연결된 계단이 나타난다(Figure 3).



Figure 3. Soyojeong in 'Donggworldo' and present Soyojeong

소요정과 관련된 역대 임금의 어제시(御製詩)가 남아 있는데, 숙종의 「소요정기(逍遙亭記)」와 「소요관천(逍遙觀泉)」, 정조의 「상림십경(上林十景)」 중 5경인 「소요유상(逍遙流觴)」이 대표적이다.

「소요정기(逍遙亭記)」 [22]

정자가 동산[苑]의 한가운데 있어 한 동산의 좋은 경치가 모두 이 정자에 모이며, 기이한 산봉우리와 층층의 암벽, 그윽한 골짜기들이 조모(朝暮)와 사시(四時)로 각각 제 경치를 드러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을 벗어난 맑고 깨끗한 생각을 갖게 하니, 땅의 소요할 만한 경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소요관천(逍遙觀泉)」 [2]

나무 푸른 높은 정자에 날은 정히 긴데(樹綠高亭日正悠),
한기히 동학의 옥천 흐름을 지켜본다(閑看洞壑玉泉流).
이 가운데 무한한 흥 따로 있나니(別有此中無限興),
술잔 전한 구비진 시내 유수를 씻네(傳觴曲水滌幽愁).

「소요유상(逍遙流觴)」 [22]

옥같이 맑게 되어 흐르는 물 굽이굽이 길기도 한데(漱玉清流曲曲長)
난간 결의 산 빛은 초가를 서늘함을 보내오네(近欄山色納新涼).
호랑에 절로 물고기 구경하는 낙이 있으니(濠梁自有觀魚樂)
난정에서 술잔 돌리는 풍류 정도뿐이라(可但蘭亭遞羽觴).

숙종은 푸른 나무[樹綠]와 흐르는 샘물[泉流]을 감상하고 물에 술잔을 띄웠으며[傳觴曲水], 정조 역시 맑은 물[清流]을 바라보며 난정에서 술잔을 돌리는 풍류[蘭亭遞羽觴]를 떠올렸다. 이것을 '소요할 만한 경치'라고 칭송하였다.

(2) 주련 해석

소요정에는 7언 율시 형식의 주련 4개가 배치되었다. 1련과 2련은 송나라 문신 이방(李昉, 925-996)의 칠언율시 중 두 구절을 따온 것인데, 궁중에서 숙직하면서 봄날이 한가롭고 팔방이 무사한 것이 임금의 은택이라는 의미로 찬송한 시다[11].

- ① 온 정원에 꽃이 피어 봄날은 긴데
(一院有花春晝永),
- ② 온 세상이 태평하니 임금의 조서도 드물어라.
(八方無事詔書稀)
- ③ 이슬 기운은 새벽녘에 청계의 달에 이어지고,
(露氣曉連靑桂月)
- ④ 패옥소리 아스라이 자미의 하늘에서 들리도다.
(珮聲遙在紫薇天) [11]

(3) 경관요소와 삼경 분석

소요정 주련에는 형태요소 중 자연요소로서 '꽃(花)'과 '청계(靑桂: 달에서 자라는 푸른 계수나무)'가 등장하고, 인공요소로서 '정원(院)'이 나온다. 그리고 의미요소는 청정함과 관련되는 '청계(靑桂: 달에서 자란다는 푸른 계수나무)', '달(月)', '패옥소리(珮聲)', '자미의 하늘(紫薇天: 천제가 거처하는 곳)'이 있으며, '태평[無事]'과 '임금의 조서(詔書)'가 태평성대를 상징한다. 풍토요소 중에서 기후와 관련된 '이슬(露)', '달(月)'이 있고, 계절은 '봄날(春)', 시간은 '새벽녘(曉)'이 설정되었다(Table 2).

Table 2. The landscape elements of Soyojeong's couplets

Classification	The landscape elements		
Form elements	Nature	Plants	Flowers(花) The green laurels(靑桂)
	Artificial	Garden	Garden(院)
Meaning elements	Religion/ Culture	Reign of peace	Peace(無事) The emperor's edict(詔書)
		Heaven sphere(天界)	The green laurels(靑桂) Moon(月) Jamicheon(紫薇天) The sound of jade(珮聲)
Climate elements	Climate	Dew(露), Moon(月)	
	Season	Spring(春)	
	Time	Dawn(曉)	

소요정 주련시에서 1련은 물리적 경관을 묘사하였고, 2련은 감정, 3련과 4련은 내면의 의식을 읊었다. 따라서 주련에서 추

출한 경관요소들을 세 가지 경지에 따라 구분하면, 첫째, 물경에서 '봄날 꽃이 핀 정원'이 설정되고, 둘째, 정경으로 '태평성대'를 칭송하며, 셋째, 의경은 '천계(天界)의 경지'를 묘사하였다(Figure 4).

Wujing	Qingjing	Yijing
▽	▽	▽
1	2	3, 4
Spring(春) Garden(院) Flowers(花)	Peace(無事) The emperor's edict(詔書)	Dawn(曉) Dew(露) Moon(月) The green laurels(靑桂) Jamicheon(紫薇天) The sound of jade(珮聲)
▽	▽	▽
A garden full of flowers in spring	Peace era	The realm of heaven

Figure 4. An analysis of Soyojeong's Samkyeong

2) 태극정(太極亭)

(1) 경관 고찰

태극정은 운영정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가 1636년 다시 짓고 개칭하였다. 「동궐도」의 태극정에는 문과 창문이 달려 있으며, 서쪽 연못의 물은 소요정으로 내려간다(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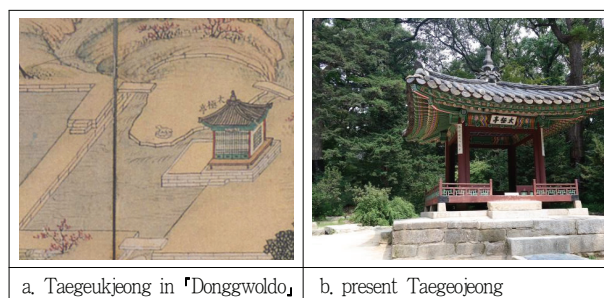


Figure 5. Taegukjeong in 「Donggwoldo」 and present Taegukjeong

정조가 지은 「태극정시」에서 옥류천 주변의 수 경관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태극정시(太極亭詩)」 [2]

적우(積雨)가 개이자 늦은 날이 아름답구나, 고각(高閣)에 앉아 새로운 천류(泉流)를 듣는다. 천성(泉聲)은 온전히 마음과 함께 조출한데, 섬진(纖塵)을 이기고서 이 자리에 들린다네.

(2) 주련 해석

태극정에는 7언 읍시 형식의 주련 4개가 배치되었다. 1련과 2련은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 699-759)의 칠언율시 중에서 두 구절을 따온 것으로서 구성궁(九成宮) 주위의 빼어난 풍경을 읊었다[12]. 3련과 4련은 청나라 문인 진굉모(陳宏謨, 1696-1771)의 칠언절구 두 구절을 따온 것이다[11].

- ① 창밖의 운무는 옷 위에서 피어오르고,
(隔窓雲霧生衣上)
- ② 휘장을 걸자 산천이 거울 속으로 들어오네.
(捲幔山川入鏡中)
- ③ 꽃 속이랴, 주렴 친 창 밖에 비 재자 제비 날고,
(花裏簾櫳晴放燕)
- ④ 버들 곁이랴, 누각에선 새벽녘에 끼끄리 소리 들리
네.(柳邊樓閣曉聞鶯)[11]

(3) 경관요소와 삼경 분석

태극정 주련에서 자연요소 중 ‘산천(山川)’이 읊어졌고, 동물 요소로서 ‘제비(燕)’, ‘끼끄리(鶯)’와 식물요소인 ‘꽃(花)’, ‘버들(柳)’이 등장하였다. 인공요소로는 ‘창(窓)’, ‘주렴 친 창(簾櫳)’, ‘누각(樓閣)’이 있고, 사설물로 ‘옷(衣)’, ‘휘장(幔)’, ‘거울(鏡)’이 나타난다. 그리고 풍토요소로서 기후와 관련된 ‘운무(雲霧)’와 ‘비(雨)’, 시간으로 ‘새벽녘(曉)’이 설정되었다(Table 3).

Table 3. The landscape elements of Taegeukjeong's couplets

Classification	The landscape elements		
Form elements	Nature	Terrain	Mountains and rivers(山川)
		Animals	Swallows(燕) Golden orioles(鶯)
		Plants	Flowers(花) Willows(柳)
	Artificial	Structure	Window(窓) Curtain(簾櫳) Pavilions(樓閣)
		Facilities	Clothes(衣) Curtain(幔) Mirror(鏡)
Climate elements	Climate	Clouds and mists(雲霧) Rain(雨)	
	Time	Dawn(曉)	

1~4련 모두 시각적 경관을 읊고 있다. 따라서 주련에서 추출한 경관요소들은 『시적』에서 언급된 세 가지 경지 중에서 물경에 해당되는데, 이것들은 ‘비 갠 새벽녘 정자 밖으로 보이는 산천’을 표현하였다(Figure 6).

Wujing
▽
1, 2, 3, 4
Cloud and mist(雲霧), Rain(雨), Dawn(曉), Pavilions(樓閣), Curtain(簾櫳), Mountains and rivers(山川), Flowers(花), Willow(柳), Swallows(燕), Golden orioles(鶯)
▽
Mountains and rivers to be seen when rain stopped at dawn

Figure 6. An analysis of Taegeukjeong's Samkyeong

3) 청의정(淸漪亭)

(1) 경관 고찰

청의정은 1636년에 건립되었고, 임금이 정자 주위의 눈에 손수 벼를 심고 벗짚으로는 지붕을 이어서 농사의 중요함을 일깨웠다고 전해진다. 정자의 사각형 기단과 둥근 지붕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상징한다. 『동궐도』에서 청의정이 있는 연못이 남북 방향으로 긴 형태이며, 청의정의 입구는 북향으로 석판교가 놓여 있다(Figure 7).

정조는 『청의정상화(淸漪亭賞花)』에서 청의정의 경관을 읊었는데, 경관요소로서 꽃(花), 돌(石), 물(水), 구름, 고니가 등장한다. 그리고 거문고 뜰, 낚시, 탐승과 같이 승경에서 이루어지는 행태가 묘사되었다.

「청의정상화(淸漪亭賞花)」 [2]

꽃나무 아래 돌에 앉아 거문고 뜰고

(彈琴花底石)

물 가운데 정자에서 고기를 낚네.

(攜釣水中亭)

고아한 모임이 탐승으로 이어지니

(雅舍仍探勝)

구름 끝에서 아름다운 고니가 듣는구나.

(雲端畫鶴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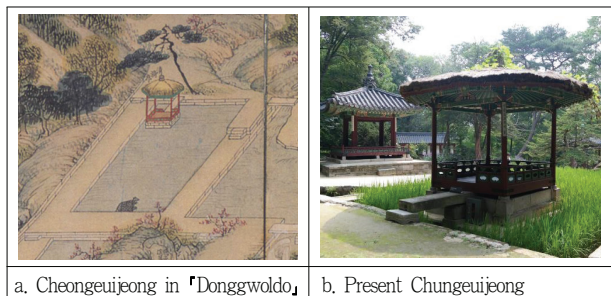


Figure 7. Cheongjeuijeong in 「Donggwoldo」 and present Cheongjeuijeong

(2) 주련 해석

청의정에는 7언 율시의 형식 주련 4개가 배치되었다. 3련과 4련은 북송 인종(仁宗, 1010-1063)의 칠언율시 「상화조어(賞花釣魚: 꽃을 감상하고 물고기를 낚으며)」 중에서 두 구절을 따온 것이다[11].

- ① 신선의 이슬은 길이 요초에 푸르게 맺혔고,
(僊露長凝謠艸碧)
- ② 채색 구름은 깊이 옥지를 곱게 감쌌네.
(彩雲深護玉芝鮮)
- ③ 물고기는 물결 위에 뛰어 때로 침범거리고,
(魚躍文波時撥刺)
- ④ 꾀꼬리는 짙은 나무에 들어 오래 서성거리네.
(鶯留深樹久徘徊) [11]

(3) 경관요소와 삼경 분석

청의정 주련에서 형태요소 중 자연요소로서 지형에 해당하는 '물결(文波: 무늬를 일으키는 물결)'이 나온다. 동물요소로서 '물고기(魚)', '꾀꼬리(鶯)'가 있고, 식물요소로서 '짙은 나무(深樹)'가 등장한다. 그리고 의미요소로서 '신선의 이슬(僊露)', '요초(謠艸:仙境에서 자라는 풀)', '채색 구름(彩雲)', '옥지(玉芝: 신선이 먹는 풀)'는 모두 신선세계를 상징한다. 그중에서 '이슬'과 '구름'은 기후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Table 4).

Table 4. The landscape elements of Cheonguijeong's couplets

Classification	The landscape elements		
Form elements	Nature	Terrain	Wavelet(文波)
		Animals	Fishes(魚) Golden orioles(鶯)
		Plants	Green trees(深樹)
Meaning elements	Religion/Culture	Immortal world	Immortal dew(僊露) Fairyland plants(謠艸) Colour cloud(彩雲) Ganoderma(玉芝)
Climate elements	Climate	Dew(露), Clouds(雲)	

Wujing	Yijing
▽	▽
3, 4	1, 2
Fishes(魚) Wavelet(文波) Golden orioles(鶯) Green trees(深樹)	Immortal dew(僊露) Fairyland plants(謠艸) Colour cloud(彩雲) Ganoderma(玉芝)
▽	▽
Fishes and golden orioles garden	Immortal world

Figure 8. An analysis of Cheonguijeong's Samkyeong

1, 2련은 속세로부터 떨어진仙境(仙境)을 묘사하였고, 3, 4련은 정자 주위의 시각적 경관을 읊었으므로, 청의정에는 정경이 빠져있다. 경관요소들을 통해서 물경은 '물고기와 꾀꼬리가 노니는 정원', 의정은 '신선세계'를 그리고 있다(Figure 8).

4) 취한정(翠寒亭)

(1) 경관 고찰

옥류천 입구에 위치한 취한정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숙종의 시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숙종 이전부터 독서와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된 듯하다[12]. 중국 송의 효종(宋宗, 1127-1194)이 궁궐 안에 취한당(翠寒堂)을 건립하고 주변 울창한 소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쐬었다는 이야기가 있다.¹²⁾ 이에 창덕궁 후원의 숲을 토대로 하여 '푸르고 서늘하다[翠寒]'는 의미로 취한정을 지었울 것이라고 추정된다(Figur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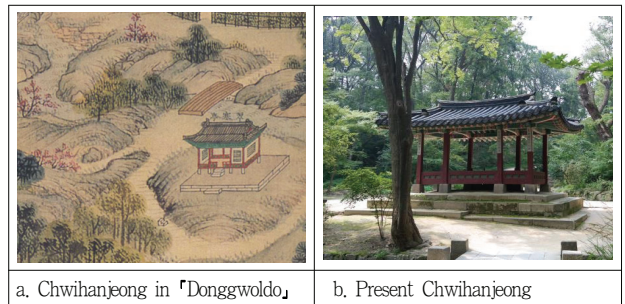


Figure 9. Chwihanjeong in 「Donggwoldo」 and present Chwihanjeong

숙종은 「취한정제영(翠寒亭題詠)」에서 취한정을 뽐뽐하게 두른 소나무 숲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푸른 모습을 군자(君子)의 절개에 비유하여 극찬하였다.

「취한정제영(翠寒亭題詠)」 [2]

녹음방초는 참으로 감상할 만하고

(綠陰芳草政堪賞)

난간 밖에 오래도록 폭포 소리 들리도다.

(檻外長留瀑布聲)

소낙비 막 지나고 바람이 잠시 멎었는데

(驟雨纔過風暫歇)

정원 속의 잎들마다 매미 소리 들린다.

(園中葉葉聽蟬鳴)

백백이 솟아나서 온통 정자를 두르니

(森森簇簇總環亭)

눈보라 추위 이겨 빛이 더욱 맑도다.

(冒雪凌寒色愈清)

사랑스러울수록, 너 홀로 군자의 절개 지니

(愛爾獨持君子節)

평탄하든 험하든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굳구나.

(不渝夷險一心貞)

정조는 「취한정에서 숙종의 시운(詩韻)을 경차(敬次)하다」라는 시를 지었다. 경관요소로서 '계곡의 푸르름[澗翠]', '뜨락의 소나무[庭松]', '숲에서 우짖는 새(禽)'가 나오는데, 숙종의 시와 마찬가지로 취한정 주변 울창한 소나무 숲 경관을 떠올릴 수 있다.

「취한정에서 숙종의 시운을 경차하다」[2]

계곡의 푸르름이 아른아른 그림 경치 열어 주니

(澗翠空濛開畫境)

뜨락의 소나무 누운 채 거문고 소리 들도다.

(庭松偃蹇聞琴聲)

아름다운 산은 노는 사람이 이르기를 허락지 않으니

(佳山未許遊人到)

숨은 새들이 숲 저편에서 우짖는 것이 사랑스러워라.

(可愛幽禽隔樹鳴)

(2) 주련 해석

취한정에는 주련이 하나를 소실하여 현재 11개를 배치하였고 7언 율시의 형식이다. 5, 6련은 송나라의 문필가王安石(王安石, 1021-1086)의 칠언율시 두 구절, 7, 8련은 왕유의 칠언율시 두 구절, 9, 10련은 송말 원초의 성리학자 우집(虞集, 1272-1348)의 칠언율시 두 구절, 11, 12련은 당나라 시인 원진(元稹, 779-831)의 칠언율시 두 구절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11].

- ① 온 뜨락의 꽃 그림자 붉은 달을 붙잡고,
(一庭花影春留月)
- ② 집안가득 술바람소리는 밤에 파도소리 듣는 듯.
(滿院松聲夜聽濤)
- ③ 구천의 이슬이 짙어 금반이 무겁고,
(九天露湛金盤重)
- ④ 오색의 구름이 드리워 푸른 지붕을 감싸네.
(五色雲垂翠蓋凝)
- ⑤ 화려한 부채 막 펼쳐 옥좌를 옮기시니,
(寶扇初開移玉座)
- ⑥ 꽃 등불이 어지러이 붉은 장막을 비추누나.
(華燈錯出暎朱塵)
- ⑦ 난여가 멀리 일천의 문의 버들을 지나서 나와,
(鸞輿迥出千門柳)
- ⑧ 각도에서 고개 돌려 상원의 꽃을 바라보네.
(閣道廻看上苑花)
- ⑨ 이슬 머금은 천 그루 복숭아를 심어 놓고,
(種成和露桃千樹)
- ⑩ 하늘 높이 나는 학 여러 마리에 내어 주었네.

(借與摩霄鶴數群)

- ⑪ 물을 스치며 버들꽃이 천만 송이 피었고,
(拂水柳花千萬點)

- ⑫ 수풀 너머 뾰꼬리가 두세 마디 울어대네. [11]
(隔林鶯舌兩三聲)

(3) 경관요소와 삼경 분석

취한정 주련에서 형태요소 중 자연요소는 '물(水)'이 등장하며, 동물요소로서 '뾰꼬리(鶯)', 식물요소는 '꽃(花)', '솔(松)', '버들(柳)', '버들꽃(柳花)', '수풀(林)'이 나온다. 인공요소는 정원인 '뜨락(庭)'과 '상원(上苑:임금의 정원)'이 등장하고, 구조물로서 '푸른 지붕(翠蓋)', '각도(閣道:누각 사이에 가설한 지붕이 있는 통로)', 시설물요소는 '금반(金盤:금속 쟁반)', '화려한 부채(寶扇)', '옥좌(玉座)', '꽃 등불(華燈)', '붉은 장막(朱塵)', '난여(鸞輿:천자의 수레)', '일천의 문(千門)' 등 다양하다. 다음으로 의미요소는 '구천의 이슬(九天露)', '오색의 구름(五色雲)', '천 그루 복숭아(桃千樹)', '하늘(摩霄)', '학(鶴)'이 신선세계와 관련된다. 여기에 풍토요소로 기후를 설명하는 '달(月)'이 있고, 계절은 '봄(春)', 시간은 '밤(夜)'이 설정되었다(Table 5).

Table 5. The landscape elements of Chwihanjeong's couplets

Classification	the landscape elements		
Form elements	Nature	Terrain	Water(水)
		Animals	Golden orioles(鶯)
		Plants	Flowers(花) Pines(松) Willows(柳) Willow flowers(柳花) Forest(林)
	Artificial	Garden	Courtyard(庭) Royal garden(上苑)
		Structure	Green lid(翠蓋) Passageway(閣道)
		Facilities	Gold plates(金盤) Gorgeous fans(寶扇) The jade throne(玉座) Festive lantern(華燈) Red curtains(朱塵) The emperor sedan chair(鸞輿) One thousand gates(千門)
Meaning elements	Religion/Culture	Immortal world	Gu cheon's dew(九天露) Five colored clouds(五色雲) One thousand peach trees(桃千樹) Sky(摩霄) Cranes(鶴)
Climate elements	Climate	Moon(月)	
	Season	Spring(春)	
	Time	Night(夜)	

1, 2련은 봄밤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11, 12련 역시 물가와 숲의 경관으로서 물경을 설명하였다. 3, 4련은 선경의 분위기를 읊고, 9, 10련은 『도화원기(桃花源記)』의 경관요소들을 읊고 있어서 의경에 해당된다. 또한 5, 6, 7, 8련은 임금이 유람을 나오는 화려한 광경이 묘사되어 정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련에서 추출한 경관요소들을 삼정에 따라 정리하면 첫째, 물경은 ‘봄밤 정원의 그윽한 정취’를 표현하였고, 둘째, 정경은 ‘화려한 임금의 후원 유람’이며, 셋째, 의경은 ‘신선세계’이다 (Figure 10).

Wujing	Qingjing	Yijing
▽	▽	▽
1, 2, 11, 12	5, 6, 7, 8	3, 4, 9, 10
Spring(春) Night(夜) Moon(月) Courtyard(庭) Pines(松) Forest(林) Flower Shadow(花影) Water(水) Willow flowers(柳花) Golden orioles(鶯)	One thousand gates(千門) Royal garden(上苑) Gorgeous fans(寶扇) The jade throne(玉座) Red curtains (朱簾) The emperor sedan chair (鸞輿) Passageway (閣道)	Gu cheon's dew(九天露) Five colored clouds(五色雲) Sky(摩霄) One thousand peach trees (桃千樹) Cranes(鶴)
▽	▽	▽
The quiet interest of the garden at spring night	The emperor's magnificent rear garden tour	Immortal world

Figure 10. An analysis of Chwihanjeong Samkyeong

2. 옥류천 일원 주련의 경관 특성

주련을 분석한 결과 소요정에는 태평성대한 시절의 어느 봄날 새벽녘, 옥류천 일원의 핵심 공간인 소요정 주변은 꽃이 만발하고 이슬 기운과 달빛이 어우러져 그윽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렇게 속세와 떨어진 천계의 청정한 경지를 즐겼다.

태극정 주련을 통해서 태극정에 앉아서 비 갠 새벽녘 숲속의 꽃과 제비, 피꼬리 소리로 한가로운 산천의 모습을 차경하는 즐거움을 파악하였다. 정조 역시 『태극정시』에서 비가 멈춘 후 숲의 경관을 읊었다.

청의정 주련에서는 숲이 우거진 연못에서 피꼬리와 물고기나 노니는 모습을 푸른 요초에 신선의 이슬이 맺히고, 신성한 옥지에 채색 구름이 감싸는 신선세계로 묘사하였다. 정조의 『청의정상화』에서도 연못이 중심이 된 경관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취한정 주련에 그려진 경관은 봄날, 달 밝은 밤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꽃 그림자가 가득한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취한정 지붕에 내려앉아 그윽한 분위기다. 이때 화려한 꽃등불이 붉은 장막을 비추고 임금의 수레가 버드나무 심겨진 도성에서 나와 취한정에 도착한다. 물가에 버들 꽃이 피고, 숲에서 피꼬리가 우는 모습이 천 그루의 복숭아나무와 학이 날아다니는 탈속의 공간처럼 여겨진다.

이와 같이 옥류천 일원 정자들의 주련시는 물경, 정경, 의경으로 구성됨으로써 당시에 즐겼던 원형경관과 체험 방식을 전달한다.

3. 옥류천 일원의 경관 해석

1) 물경의 특성

주련시에서 도출한 물경은, 소요정은 ‘봄날 꽃이 핀 정원’, 태극정은 ‘비 갠 새벽녘 정자 밖으로 보이는 산천’, 청의정은 ‘물고기와 피꼬리가 노니는 정원’, 취한정은 ‘봄밤 정원의 그윽한 정취’로 해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계절은 봄이고, 시간은 새벽녘과 달밤이 설정되었으며, 비가 개이고 이슬이 내려앉은 고즈넉한 정원에 꽃이 피고, 연못에서 물고기가 노닐고, 울창한 소나무숲에서 피꼬리가 우는 모습으로서 하늘의 순리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연경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정경의 특성

주련시에서 정경이 드러난 소요정의 ‘태평성대’와 취한정의 ‘화려한 임금의 후원 유람’을 통해서 볼 때, 이상적 정치로 치세가 안정되고 태평한 시절에 임금이 옥류천 일원에서 유람하였으며, 화려한 부채 아래로 붉은 장막을 치고 옥좌를 마련한 수레에 탄 임금이 행차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묘사되었다. 이것은 중국 문인 왕안석의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 임금이 행차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3) 의경의 특성

주련시에서 의경은 소요정의 ‘천계의 경지’, 그리고 청의정과 취한정의 ‘신선세계’로 정리되었다. 옥류천 일원의 승경 속에서 속세를 떠나 자연의 질서가 제공하는 조화로움을 만끽하며 물아일체(物我一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비로운 경지를 신선이 사는 이상향으로 이해하였다. 인간 세상 속에 감춰진 신선세계를 지향하였던 선유(仙遊)와 관련하여 So and Lim(2014)[24]은 조선시대 문인들의 유산(遊山) 문화와 선경의 관련성을 정리한 바 있다.

V. 결론

전통원림에서 심미적, 상징적 가치를 지니는 주련은 현장의 물리적 형태와 정감, 그것을 통해서 추구한 이상을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옥류천 일원에 소재한 소요정, 태극정, 청의정, 취한정에 걸린 주련시에 표현된 경관요소들을 왕창령의 『시격』에 제시된 물경, 정경, 의경으로 구분하여 경관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경과 관련하여 봄날 새벽녘이나 달밤에 비가 개이고 이슬이 내려앉은 고즈넉한 정원에는 꽃이 피고 연못에서 물고기가 노닐고,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피꼬리가 우는 경관이 그려졌다.

둘째, 소나무 숲으로 위요된 옥류천을 중심으로 한 수 경관을 기본으로 하여 화목류가 식재된 시각 경관에 솔바람 소리, 피꼬리 소리와 같은 청각적 요소와 일시적 경관으로서 봄, 달밤, 새벽녘, 비, 이슬, 구름, 운무가 어우러진 공감각적 경관이 강조되었다. 여기에 제비와 물고기가 만드는 역동적 경관도 추가되었다.

셋째, 정경과 관련하여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을 위해서 임금이 화려한 부채 아래로 붉은 장막을 친 수레에 앉아 옥류천 일원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치세가 안정되고 태평한 시절에 대한 감정이 표현되었다. 이것은 어려운 시기를 보낸 지나간 역사를 교훈 삼아 태평성대에 대한 감사와 기대라고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의경과 관련하여 옥류천 일원의 승경이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을 만끽하며 물아일체를 경험하는 청정한 경지를 제공함으로써 그 감흥을 신선세계로 묘사하였다.

다섯째, 자미의 하늘, 구천과 같이 신선이 사는 장소와 경관 요소로서 청계, 복숭아나무, 학, 요초, 옥지가 표현되고 패옥소리, 채색구름, 이슬이 신선세계를 수식하였다.

여섯째, 창덕궁 후원의 옥류천 일원은 주어진 지형, 식물, 동물과 계절, 시간, 기후가 어우러져 만드는 자연의 질서를 보여주는 정원이었으며, 이렇게 자연성 높은 경관을 경험하면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승경에 대한 감동을 탈속의 경지로서 신선 경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서 물경을 통한 조선시대 옥류천 일원의 원형경관과 정경과 의경으로 그것을 체험했던 방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주련시의 정보를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창덕궁 후원의 방문자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 1) 대구를 이루는 글로서 상련과 하련의 자수가 같아야 하고, 자의 또한 짝을 이루어야 하며, 음조까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특유의 언어예술이다[1].

- 주 2) 인조 14년(1636)에 소요암을 깎아내고 그 위에 흙을 파서 휘도는 물길을 끌어들이 작은 폭포를 만들었다[2].
- 주 3) 악귀(惡鬼)를 쫓는 부적의 일종으로서 복숭아나무 판자에 신도(神茶), 울루(鬱壘)의 두 신상(神像)을 그려서 대문 곁에 걸어두면 악귀를 쫓는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16].
- 주 4) 봄날 소망이나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말 등을 적어 대문이나 벽 등에 붙이는 것으로 '문대(門對)', '춘첩(春貼)', '대련(對聯)' 등으로도 부른다[16].
- 주 5) 임춘 날 송축(頌祝)을 위해서 문관들이 지은 시를 써서 대궐 전각 기둥에 붙였던 주련이다[16].
- 주 6) 의경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설부흥(薛富興)은 『동방신운-의경론·제1장(東方神韻-意境論·第1章)』에서 유구주(劉九洲), 『예술의경개론(藝術意境概論)』의 주장에 의거하여 '의경의 잠재기(주대-양한시기)', '의경의 잉태기(위진남북조)', '의경의 형성기(당대)', '의경의 발전기(송대)', '의경의 종결기(명·청대)'로 구분한다.
- 주 7) '詩有三境. 一曰物境: 欲爲山水詩, 則張泉石云峰之境, 極麗絕秀者, 神之于心, 出身于境, 視境于心, 瑩然掌中, 然后用思, 了然境象, 故得形似. 二曰情境: 娛樂愁怨, 皆張于意而處于身, 然後馳思, 深得其情. 三曰意境: 亦張之于意而思于心, 則得其真矣.' [18]
- 주 8) 북경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엽량은 『中國美學史』 등을 저술하였다.
- 주 9) 這三種境界中, '物境' 是自然山水境界, '情境' 是指人生經歷境界, '意境' 是指內心意義的境界. 要注意, 這個 '意境' 和我們現在說的意境說的 '意境' 並不是一個概念. 王昌齡說的這個 '意境', 是 '境' 的一種, 對於藝術創造的主體來說, 它和其他兩種 '境' 一樣, 都屬於審美客體. 而意境說的 '意境', 則是一種特定的審美意象, 是 '意'(藝術家的情意) 與 '境'(包括王昌齡說的 '物境', '情境', '意境') 的契合. [19]
- 주 10) 王昌齡卻是明確地將意境劃分爲 '物境', '情境', '意境' 三種形態, 這分別是對山水詩, 抒情詩, 哲理詩創作經驗的總結. [20]
- 주 11) Jang(2014)은 구곡(九曲)의 원형경관 해석을 위하여 경관요소를 형태, 의미, 풍토로 분류하였다[21].
- 주 12) 禁中避暑, 多御夏古, 選德等殿, 及翠寒堂納涼, 長松修竹, 濃翠蔽日, 層巒奇岫, 靜窈縈深, 寒瀑飛空, 下注大池可十畝. [23]

REFERENCES

- [1] Kim, K. H.(2011). A study of Chinese couplet culture. Master's thesis of Daejeon National University.
- [2]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1994). 『Gunggwolji2(宮闕志2)』. Seoul: University of Seoul.
- [3] Lee, J. S.(1984). 『Investigation status of the pavilions' hanging couplets in Changdeokkung Palace(昌德宮內 亭·樹·堂·齋 柱聯調查現況)』.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7: 259-273.
- [4] Guhwangsiljaesansamuchonggug(舊皇室財産事務總局 1957). 『Investigation status of the pavilions' hanging couplets in Palace(各宮柱聯調書)』.
- [5] Yi, S. H.(2000). An Interpretation of Landscape of Ch'angdok Palace Rear Garden: Focused on the king Jongjo's "Sangrimshipkyong" Poe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8(1): 94-103.
- [6] Kang, M. S.(2006). Landscape interpretation plan for Changdeok Palace based on the ten sceneries of Sangrimshipkyong poem. Maste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7] Jung, W. J.(2015). The systems of space composition and the aspects of operation in the rear garden of Joseon palace. Doctoral thesis of Korea University.
- [8] Hong, H. S.(2015). Jeongjo's Enjoyment of the Palace Garden.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3(4): 10-25.
- [9] Son, Y. H. and Ham, K. M. (2011). A Study on Yijing and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nalysis of Poems in Changdeokgung's Rear Garde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3): 124-133.
- [1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6). The understanding of the palace's couplets. Daejeon: Jungilsa.
- [1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7). The boards(匾額) and couplets(柱聯) of the palace(2): Changdeokgung·Changgyeonggung. Seoul: Sulyusanbang.
- [12] Kwon, Y. A.(2007). A study of boards(匾額) and couplets(柱聯) in Chosun Dynasty: Focused on palace, temple and seowon. Master's thesis of Kyonggi University.
- [13] Liu, J. W.(2014).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uplets i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Couplets of Gyeongbokgung, Changdeokgung and Forbidden City. Master's thesis of Chung-Ang University.
- [14] Lee, K. C.(2011). Investigation of Changdeokgung's couplets(昌德宮柱聯考察). The Society for Chinese Studies. 63: 53-59.
- [15] Heo, G.(2011). Palace Ornament. Seoul: Dolbegae.
- [16] <http://terms.naver.com>.
- [17] Lee, H. J.(2013). Research on Korea couplets(柱聯)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Doctoral thesis of Shandong University.
- [18] Wang, C. L.(Unknown). 『Shige(詩格)』. (<http://xueshu.baidu.com>).
- [19] Ye, L.(1985). 『History of Chinese aesthetics outlines(中國美學史大綱)』. Shanghai of China: Shanghai People's Publishing House.
- [20] Gu, F.(2001). 『Yijingtanwei(意境探微)』. Jiangxi province of China: BaiHuaZhou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 [21] Jang, J. S.(2014).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Sansu Landscape Using Ecological Analysis. Doctoral thesis of University of Seoul.
- [22] <http://db.itkc.or.kr>.
- [23] Zhou, M.(1981). 『Wulinjiushi(武林旧事)』. West Lake House Book (西湖書社). (<http://www.baidu.com>).
- [24] So, H. S. and Lim, E. J.(2014).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Utopia Shown in the Travel Records of Jirisan Mountai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3): 139-153.

원 고 접 수 일: 2017년 7월 31일
 심 사 일: 2017년 8월 23일 (1차)
 : 2017년 9월 21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7년 9월 21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